

남규리, 홍콩 여행 근황…이소룡 동상 앞에서 액션 욕심

등록 2026.02.01 22:01:21



[서울=뉴스시스] 이종희 기자 = 가수 겸 배우 남규리가 나홀로 홍콩 여행을 떠난 근황을 전했다.

1일 유튜브 채널 '남규리의 굴멍'에는 'Ep.32 남규리의 화양연화는 지금! 프로 유튜버로 거듭나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남규리는 과거 중국 드라마 촬영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치파오 대여점을 찾았다.

남규리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어울리는 치파오를 고르고, 우아한 업스타일 헤어를 완성한 뒤 포즈를 취했다.

이어 페리를 타고 침사추이로 이동해 광고 촬영차 찾았던 옛 장소들을 다시 마주하며 추억에 잠겼다.

스타의 거리에서는 전설적인 액션 스타 이소룡의 동상을 발견하고 그의 시그니처 포즈를 재현하며 "언젠가 꼭 액션 배우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을 앞두고 가졌던 걱정과 달리 남규리는 “결국 오길 잘했다”며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편, 남규리는 유튜브 채널 ‘굴멍’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